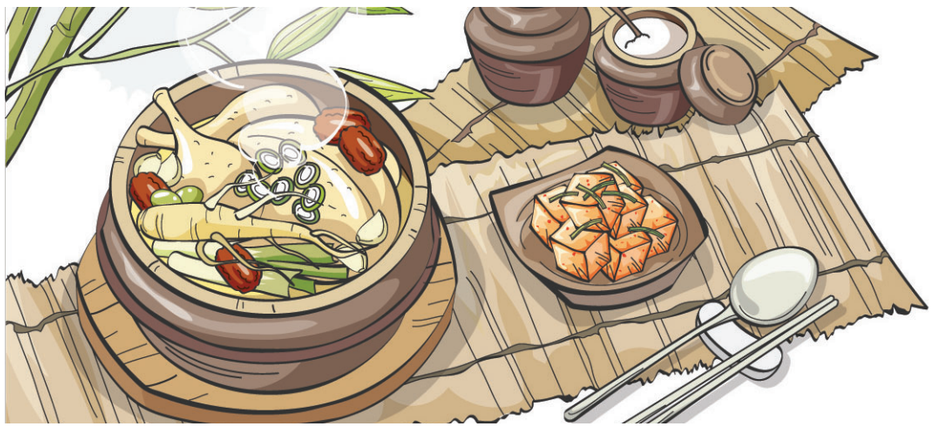
보양식 몸값 '천정부지'… 여름 몸보신 '흐지부지'

흑염소 가격 2년새 60% 급등…양탕 1인분 2만원 "비싸서 못 먹어"
오리 한마리 2만6천원 1년새 70% 껑충…삼계탕 1인분 1만8천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보양식' 생각이 나는데, 워낙 비싸니 사서 먹기가 부담스럽네요. 올 여름 복달임도 못하고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김동수(64·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평소 체력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좋지 않을 때 '양탕'이라고 불리는 흑염소 요리를 즐긴다. 김씨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평소보다 자주 생각이 나지만 최근 들어 흑염소 요리 전문점을 찾는 빈도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김씨는 "집 근처 양탕 전문점 1인분 가격이 2만원에 달한다. 1년 전만 해도 1만5000원 수준이었는데, 가격이 갑작스레 너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양탕 대신 보양식을 대체할만한 삼계탕도 요즘 1만8000원 수준이다"며 "퇴직자가 한 끼 2만원 넘게 주고 밥을 사먹기는 힘든 일"이라고 푸념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어 날씨가 무더워지자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비싸서 못 사먹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개고기'를 먹는 보신탕 문화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면서 당장 흑염소 가격이 60% 이상 오르는 등 연일 흑염소 '몸값'이 치솟고 있다.

14일 한국흑염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kg(거세)당 1만3000원이었던 흑염소 고기 가격은 최근 2만1000원으로 무려 66%나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흑염소 사육두수는 줄어든 반면 사료비 등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데다, 흑염소가 개를 재료로 하는 보신탕의 대체식품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흑염소 사육두수는 지난 2021년 55만1317마리에서 지난해 52만9957마리로 2만1360마리(3.8%) 줄었다.

흑염소를 대체할 수 있는 보양식 재료로 꼽히는 오리와 닭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이날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박혜원(여·58)씨도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실감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오리탕을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 식재료를 구입하러 집 앞 슈퍼마켓을 들렀다가 오리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꺼냈다.

박씨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1만5000원 수준이던 오리 한 마리가 지금은 2만6000원 정도에 달한다"며 "외식물가가 크게 올라 부담이 큰 탓에 일부러 해 먹으려고 했는데, 오리값이 너무 비싸 올 여름 몸보신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리 가격도 폭등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800원 수준이었던 오리 도매가격은 올해 7937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다.

오리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 제한으로 오리 사육두수가 줄어든 탓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닭 평균 소매 가격은 6556원으로 전년 대비 12%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소맥과 옥수수, 콩깻묵 등 사료 가격이 치솟고, 지난겨울부터 AI로 인해 병아리 원가가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역시 비싸졌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삼계탕 가격은 1만64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만4800원보다 11%(1600원)나 올랐다. 당장, 광주 도심 삼계탕 전문점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8000원 수준으로 2만원에 육박한다.

이밖에 복날 즐겨 먹는 옻닭과 백숙도 6~7만원을 웃돌아 올 여름 서민들의 복달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 광주은행장(가운데)과 2023년 전반기 '광은 명장'에 선정된 직원들이 광은 명장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반기 '광은 명장' 40명 시상

수신·자산관리 등 14개 부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3년 전반기 '광은 명장' 대상자 40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영업력이 우수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광은명장제도'는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해 수신, 여신, 자산관리 등 총 14개 부문의 명장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포상제도다.

직원들의 경쟁력 확보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광은명장제도는, 직원들의 영업동기를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영업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단위로 'Pre(예비) 명장'을 선정해 각 부문별 명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노사간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직원간 과열 경쟁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광주은행만의 특색있는 영업문화로 정착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시상식에서 "'광은명장제도'가 당행의 특색있는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금융환경 속에서도 광주은행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내실있는 질적성장이 필요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K-푸드' 영국 젊은이들 사로잡다

aT 'KOREA NOW 축제' 참가…라면·김치·주류 등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아우터넷(Outernet)에서 열린 'KOREA NOW 축제'에 참가해 현지 젊은층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런던 중심부의 명소인 복합문화공간 아우터넷에서 개최돼 현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aT는 K-푸드 홍보 부스를 통해 라면, 김치, 장류를 비롯해 최근 유망품목으로 떠오른 주류까지 주요 수출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아이돌그룹 BTS의 멤버 정국의 라면 레시피를 비롯해 라볶이, 호떡 등 다양한 조리법이 담긴 엽서 카드와 런던 시내 한국 식품 판매점 안내 지도를 배포했다.

또 현장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대회도 개최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국에서도 K-푸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K-푸드를 향한 런던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영국 전역으로 K-푸드 수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효성그룹, 수소 선도국가 달성 일조하겠다"

조현상 부회장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2차 총회서 포부

조현상〈사진〉 효성그룹 부회장이 14일 최고경영자 수소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 2차 총회에 참석해 수소 선도국가 달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조 부회장은 발언을 통해 "효성그룹은 2000년부터 CNG 충전사업, LNG, 수소충전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 저변 확대에 노력해왔고 국내에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에 건설중인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직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도 전국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 태양광, ESS 사업과 연계된 그린수소 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효성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섬유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소재로, 향후 수소차량 증가 등 시장 성장에 발맞춰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소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규제 완화,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효성그룹은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수소사업 비전을 내놓은 지 2년 만에 액화수소 생산에서부터 운송, 저장에 이르기까지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 분야를 다루는 기업들의 민간 협의체로 2021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시 창립총회 이후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14일 협력사와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형 상생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자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주관으로 광주·전남권 협력사 80개사와 광주시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폴리텍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결의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4가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첫 번째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점검지원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협력사 안전등급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협력사 3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일반기계기구, 작업환경, 화재안전 등 현장부문과 경영자 리더십, 안전교육, 공사안전관리 등 서류부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자율적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세 번째는 협력사와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열고,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채널을 구축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네 번째 상시적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 안전개선 제안을 접수 받고 관련 내용과 진행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협력사와 함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 6.0% 확정

5대 은행, 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 1.0~1.7% 수준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9.08(-18.87)
↓ 코스닥	871.83(-24.98)
↑ 금리(국고채 3년)	3.545(+0.061)
↑ 환율(USD)	1278.50(+7.10)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14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가 '역마진'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000만원 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연합뉴스